

No. 2013-06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2. 04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 경제이슈
: 원고엔저, 한일 라이벌기업에 상반된 영향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 엔화의 對미 달러환율이 2012년 10월 엔저로 반전된 이후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엔저가 가속, 2월 1일 기준 달러당 92.3엔까지 하락
- 2012년 2/4분기 이후 수출부진 등으로 GDP성장률이 ▲1.0으로 반전되었고, 3/4분기에는 ▲3.5%로 더욱 감속
- 2012년 수출은 2.7% 감소한 반면, 수입은 3.8%나 증가함에 따라, 사상 최대 적자
* 對한국 무역수지 흑자는 21천억엔에서 16.7천억엔으로 축소
- 2012년 7월 이후 경상수지흑자 축소경향, 11월에는 2.2천억엔의 적자로 반전

구분	2010	2011	2012	2012						
				7	8	9	10	11	12	
실질GDP증가율(연율,%)	3.4	0.3	-	▲3.5			-			
수출(천억엔)	678	653	(637)	53	50	54	51	50	53	
수입(천억엔)	625	697	(707)	58	58	59	57	59	59	
對한국 수출	54.6	52.1	(49.1)	3.96	3.85	3.98	3.94	3.93	4.35	
對한국 수입	26.7	32.9	(32.4)	2.78	2.44	2.42	2.70	2.82	2.84	
직접투자(억달러)	572	1157	-	287			-			
對한국 투자	11	24	-	4.9			-			
소비자물가(%)	▲0.8	0.0	-	▲0.2	0.2	0.2	0.0	▲0.3	▲0.1	
실업율(%)	4.9	4.5	-	4.3	4.2	4.2	4.2	4.1	-	
경상수지(천억엔)	166.6	76.2	-	6.3	4.5	5	3.8	▲2.2	-	
엔화 환율	對미달러	85.7	79.1	-	79	78.7	78.2	79	80.9	83.6
	對원화	1321	1391	-	1446	1438	1439	1401	1344	1288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1.2	12.9	-	12.7	12.7	12.8	12.7	12.7	12.7	
은행대출금리(%)	1.57	1.48	-	1.40	1.40	1.38	1.38	1.38	-	

주1) '10, '11년 지표는 회계연도(전년4월~익년 3월), '12년 지표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율, 환율, 대출 금리는 기간평균

자료 : 일본경제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주요 연구보고서

- 『중소기업의 해외전개지원시책집』 중소기업청, 1월26일
*출처:<http://www.chusho.meti.go.jp/keiei/kokusai/2012/0123KTJirei-1.pdf>
- 『아베정권에서 무엇이 변하는가? 경제정책 10개 분야에서의 제안과 마인드 전환의 10개 포인트』 미즈호종합연구소, 1월 26일
*출처:<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urgency/report130125.pdf>
- 『환율변동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재무종합정책연구소, 1월26일
*출처:http://www.mof.go.jp/pri/research/discussion_paper/ron247.pdf
- 『2013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 내각부, 1월29일
*출처:<http://www5.cao.go.jp/keizai/mitoshi/2013/0128mitoshi.pdf>

② 주간 경제이슈 : 원고·엔저, 한일 라이벌기업에 상반된 영향

□ 韓日 라이벌 기업의 주가에 명암 엇갈려

-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엔저·원고의 영향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韓日 주요 기업들에 대한 주식시장에서의 평가가 한층 엇갈리고 있음
- 1월 28일 동경주식시장에서는 도요타자동차와 닛산자동차의 주가가 작년 이후 최고가를 갱신한 반면, 한국주식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작년 이후 최저가를 갱신

□ 엔저·원고의 영향

- 원화의 對미달러 환율은 2011년 9월 이후 고수준을 유지해온데 비하여, 엔화는 약 2년 7개월 만에 底수준
- 작년 후반부터 진행된 엔저·원고기조에 의해 韓日 기업 간의 주가 차이도 확대되고 있음
- 원고는 국내생산의 약 60%를 수출하는 현대자동차에 역풍으로 작용, 2012년 4/4분기 연결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반면, 도요타는 엔화의 對미달러 가치 1엔 엔저로 영업이익이 약 350억엔 증가
- 일본기업들은 韓日이 경쟁하는 미국시장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작년 가을까지 도요타와 혼다가 각각 캠리와 어코드의 新모델로 현대자동차를 공략
- 가격인하나 대출금리 인하로 충당하는 각사의 판매 장려금은 지난 달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은 감소한데 비하여 현대자동차는 증가
- 일본기업들은 거의 표준가격으로 신형차를 판매하는데 비하여, 한국기업들은 인하폭을 늘려 대항하는 구도임
- 엔저·엔고는 일본기업들에게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도요타는 한미FTA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캠리를 수출. 엔저로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가격인하에 나서고 있다고 니혼게이 자이신문은 보도하고 있음
- 시장의 평가는 철강이나 조선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신일철주금은 작년 10월초 7,000억을 상회했던 포스코와의 시가총액 차이가 5,000억엔으로 축소

□ 수주경쟁에 변화

- 조선업계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역전. 한국기업들과 수주경쟁에서 고전해왔던 일본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음
- 일본기업들은 아직도 원이 아직도 과소평가되었다고 지적
 - 최근에는 원저 방향으로 조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완만한 원고는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 한국정부의 구두개입 움직임도 있으나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경계하여 대규모의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음

□ 전자는 삼성이 독주, 원고를 스마트폰으로 흡수

- 외환시장에서 진행되는 엔저·원고는 일본 전자업계의 수익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는 한국기업이 압도적인 우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삼성도 원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으나, 스마트폰 분야에서 2012년까지 2년 연속 수위를 점하는 등 압도적인 글로벌전략으로 역풍을 흡수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일본기업들은 非채산성 사업이나 설비의 정리를 우선시하는 바람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응이 늦어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

3 경제정책동향

□ 2013년도 예산, 디플레이탈출 우선에 밀린 개혁

- 일본정부가 29일 각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결정
 -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0.3% 감소한 92조 6,115억엔으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 안을 포함한 세출규모는 100조엔을 상회
- 이는 경기부양과 디플레 탈출을 우선시한 아베 정권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신규 국채발행은 줄었으나 재정구조개혁은 제자리걸음
 -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효과가 큰 공공사업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깎았던 사업비를 복원한 것으로 7,000억 증가한 5조 2,853억엔
 - 일반회계의 규모, 정책 경비 등 외형상으로는 줄었지만, 세출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출억제의 핵심은 민주당 정권이 신설했던 경제위기 대응 위한 예비비를 폐지한 것임
- 세출에서는 사회보장 등에 사용되는 정책경비는 전년도보다 0.8% 감소한 70조 3,700억엔. 생활보호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정액은 670억엔으로, 수급자 증가에 따른 지급총액 증가분에 미치지 못함
 - 국채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경비(국채비)는 상정 금리를 5년 만에 2.0%에서 1.8%로 인하하여 증가율을 억제
- 세수는 43조 960억엔으로 전년도 당초보다 증가한 반면, 신규 국채발행액은 1.4조엔 줄어든 42조 8,510억엔
 - 국채의존도는 당초 47.6%에서 46.3%로 저하되어 세수보다 국채발행이 많은 이른바 「역전현상」은 4년 만에 해소될 전망
 - 장기금리 상승을 우려한 시장에도 배려하였으나,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5.2조엔의 건설국채 증발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건전화 노선은 불투명

4 일본기업동향

□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차 판매급증, 중국시장에 필적

- 내수주도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차의 판매가 급증
 -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6개국에서 2012년 판매대수가 전년대비 약 40% 증가한 273만대로 중국시장에 필적하는 규모임
- 중국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동남아시아를 전략지역으로 설정, 현지 사정을 고려한 차량개발에 주력
 - 2012년 중국의 자동차시장은 1,549만대(상용차 제외)로 전년대비 7%증가했으나, 日中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일본차는 250만대로 10% 가까이 감소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일본자동차 시장점유율은 약 79%로 전년보다 5포인트 상승
 - 1960년대부터 동남아시아에 본격 진출한 일본자동차업체들은 부품공장 집적 등에서 강점을 가짐으로서 7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
 - 혼다는 아시아 전용 소형차, 「프리오」를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투입, 다이하츠공업도 조만간 소형차 「아이라」를 인도네시아에서 판매 예정

□ 국제협력은행, 해외생산품에 대한 지원용자로 인프라 수주지원

- 국제협력은행이 이달부터 일본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인프라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외국 바이어기업에 용자제도를 도입
- 용자대상 범위를 국내기업에서 일본계기업으로 확대, 아시아를 중심으로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을 확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단련과 일본 무역회의 인프라수출에 대한 지원확대 요구에 대응한 것임
 - 국제협력은행은 국내생산의 공동화를 우려하여 해외자회사의 판매나 수출처에 대한 용자를 보류해왔음
- 용자대상은 플랜트, 전기, 건설기계 등 현지법인의 존재감이 높아진 기업들의 거래처 수요를 예상하고 있음
 - 해외에서 인프라사업의 수주를 둘러싸고 한국 및 중국기업들과의 경합이 치열해져, 금융 측면에서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임

5 한국관련워치

□ 일본전기초자 한국공장을 증설, 액정유리기판을 LG디스플레이에 납품

- 일본전기초자(NEG)가 한국에서 액정패널용 유리 기판의 공장을 증설
 -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장을 건설 중이었으나, 납품처인 LG디스플레이와의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추가투자로 총 투자 규모는 700억엔 정도
 - NEG는 액정용 유리 기판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3위로 20%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시장 판매가 50%를 차지
- NEG는 전액 출자한 자회사를 파주시에 해외 최초로 액정패널용 유리 기판공장을 건설 중에 있음
 - 투자액은 330억엔으로 일본에서 제조설비를 이관, 일본에서 전량 수출하고 있던 것을 일부 현지생산으로 대체할 계획
- 액정용 유리 기판 수요에 대응하고 대폭적인 비용절감을 위해, 일본에서 생산 이관을 추진하여 한국공장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임
 - 제2기 공장은 2014년 중반에 가동될 전망이며, 완공 후에는 NEG 전체 생산능력의 20%를 차지하여 연간매출액이 약 400억엔 이를 전망

□ LG전자, 유기EL TV 일본시장 발매

- LG전자는 차세대 박형TV로 기대되는 유기EL TV를 금년 봄에 일본으로 수출 하여 55형 상품을 가전양판점을 통해 판매할 예정
- 현 단계에서 일본 업체가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먼저 출시함으로써 브랜드력을 강화, 다른 액정TV 판매를 지원할 목적임
- LG는 이달 2일부터 일본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55형 제품의 예약판매를 한국에서 시작하는데 리빙용 대형 유기EL TV로는 세계 최초
- 일본에서의 판매가격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미국과 한국에서의 판매가격을 감안하면서 판단할 예정
 - 통상 액정TV에 비하여 고가이기 때문에 판매량보다도 양판점에 전시함으로써 집객효과를 노린다는 지적
- 유기EL TV는 범용화에 의한 박형TV의 가격하락을 억제할 목적에서 삼성전자와 소니, 파나소닉 등도 제품개발을 서두르고 있음